



## “보고싶은 책 직접 빌리고 정리해요”

어린이 도서관 문화 선도하는 ‘부산 재송어린이도서관’

부산 최초 공립 어린이 전용 도서관을 찾았다. 우리나라 제2의 도시로 꼽히는 부산에서 ‘최초’라는 수식어는 여러 상징적 의미를 포함한다. 사실 어린이도서관에 비해 수적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도서관 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공공어린이도서관의 탄생은 지역 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주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10월 개관한 부산재송어린이도서관은 지역적으로는 해운대구 재송1동에 속하지만 근접한 4개구(수영구, 연제구, 동래구, 금정구)를 아우를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이용자의 근접성이 높다. 특히 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는 신흥주거지역(샌텀지구)이라는 특성이 있어 개관과 함께 이용자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주)다우썸이 도서관 부지를 해운대구에 무상기증하고 국고 22억원을 배정 받아 건립한 도서관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계획단계에서는 지상 2층으로 설계했으나 구와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3층으로 증축했다. 아담한 건물 외관

과 달리 재송어린이도서관이 내세우는 가장 큰 장점은 어린이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설비된 시설물이다.

“일일독서체험교실이나 이야기 극장 같은 프로그램에 어린이단체들이 많이 방문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아이들 사이에서도서관 다녀간 것이 유행처럼 되어 버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우덕숙 사서는 “한 번 다녀간 아이들은 엄마한테 다시 가고 조르고 서가의 탁자, 의자를 개인적으로 구입 가능한지 물어오기까지 한다”고 전했다.

어린이 이용객을 위한 것은 책과 건물만이 아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에는 특별한 이용수칙이 있다. 도서대출시 반드시 아이들 스스로 회원가입서를 작성하고 본인이 대출 해야 한다. 우덕숙 사서는 “도서관 주이용객이 엄마들이라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인 만큼 이용객들도 어린이들이 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어린이 이용객은 또 열람실에서 책을 본 후에는 서가에 책을 꽂는 일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같은 도서관 방침은 시행 초기 민원사유가 되기도 했으나 이제는 오히려 “집에서도 책

정리를 잘한다”며 학부모들이 반기는 입장이다. 도서관 측에서는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판단에서 시작했다. 사서들이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편하기는 하지만 올바른 도서관 이용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아이들이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은 미취학 아동들을 도서관 운영의 핵심 연령으로 구분한다. 유아기부터 책을 가까이하는 습관이 형성되면 도서관 문화는 물론 어린이들의 독서 문화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전망이다. 요일별로 진행되는 독서교실은 여느 도서관과 달리 3~5세반, 6~7세반 그리고 각 학년별로 세분화 된다. 학습 수준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눈높이 서비스 방침이다. 이러한 관심 덕분에 개관초기 만화책에만

관심을 보이던 아이들도 조금씩 독서 범위를 넓혀가며 책을 친근하게 여겨 현재 관외 대출이 70% 이상을 웃돈다. 또한 신설 아파트 단지라는 위치의 특성상 영유아를 둔 젊은 세대 주민들이 많아 자녀교육서와 독서가이드 도서 대출도 많다. 현재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인력은 10명. 매일 진행되는 도서관 프로그램을 꾸려나가기에도 부족한 실정이다. 앞으로 재송어린이도서관은 공립 도서관으로서의 모범적인 선례를 전하기 위해 올 한해 다각적인 발전 계획을 모색하고 있다. **출처**



초등학생 이상은  
본인대출입니다.

어릴수록 책을 읽고 대를 이어 기쁨과 성취감이 무엇보다 크합니다.  
정말이 오기 전에 미리 읽고, 읽고 싶은 책을 미리 읽어주세요!  
정말이 오기 전에 미리 읽고, 읽고 싶은 책을 미리 읽어주세요!  
정말이 오기 전에 미리 읽고, 읽고 싶은 책을 미리 읽어주세요!  
정말이 오기 전에 미리 읽고, 읽고 싶은 책을 미리 읽어주세요!  
정말이 오기 전에 미리 읽고, 읽고 싶은 책을 미리 읽어주세요!  
정말이 오기 전에 미리 읽고, 읽고 싶은 책을 미리 읽어주세요!  
정말이 오기 전에 미리 읽고, 읽고 싶은 책을 미리 읽어주세요!  
정말이 오기 전에 미리 읽고, 읽고 싶은 책을 미리 읽어주세요!  
정말이 오기 전에 미리 읽고, 읽고 싶은 책을 미리 읽어주세요!

취재 송보경 기자 사진 박신우 기자

## 주창술 관장 인터뷰

# “어린이를 위한 맞춤 서비스 시행할 터”



주창술 관장·우덕숙 사서

“유아들에 대한 어머니들의 관심이 대단합니다. 저 스스로도 예전과 달리 어린이들의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이용객들의 활동을 보면서 2~3년 후에는 도서관 이용문화가 획기적으로 변모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도서관 행정업무 25년 경력인 주창술 관장은 부산 최초 공공어린이도서관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느끼는 책임감과 열정이 비례함을 내비쳤다. 평일 이용객만 700여 명, 주말에는 1,200명을 넘는 이용객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정비하는데 어느덧 5개월을 보낸 참이다.

“지방은 사실 여러모로 문화적 혜택이 부족합니다. 다행히 전국적으로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실정입니다. 일반 도서관에 포함된 어린이실과는 눈높이가 틀리다는 점이 어린이도서관이 가진 장점이겠죠.”

재송어린이도서관은 개관 초 어린이와 어머니 회원들의 원성에 시달려야 했다. 회원들이 사서 대신 어린이가 직접 책을 정리 하고, 타도서관과 달리 어머니가 자녀들의 책을 대출할 수 없다는 도서관 방침에 불만을

표현했다. 직원 모두 힘들어했지만 원칙을 고수한 덕분에 현재는 새로운 도서관 문화를 형성하고 안정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최초 공립어린이도서관으로서 도서관 운영과 규칙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작용이 있더라도 하나의 기준을 확실히 세워서 어린이 도서관과 일반 도서관의 차이점을 각인 시켜야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이들 스스로 공공시설물 이용 문화를 체득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낀 어머니들이 이제는 더욱 좋아합니다.”

주 관장은 올해 인력을 보강하고 예산을 확보해 소외계층 어린이들을 우선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계획을 세우고 있다. 직원 모두 한 가지씩 전문분야를 개발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도서관이 시설과 걸치레만 신경 쓰기 보다는 좋은 자료와 서비스로 내실있는 운영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 이용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출처**